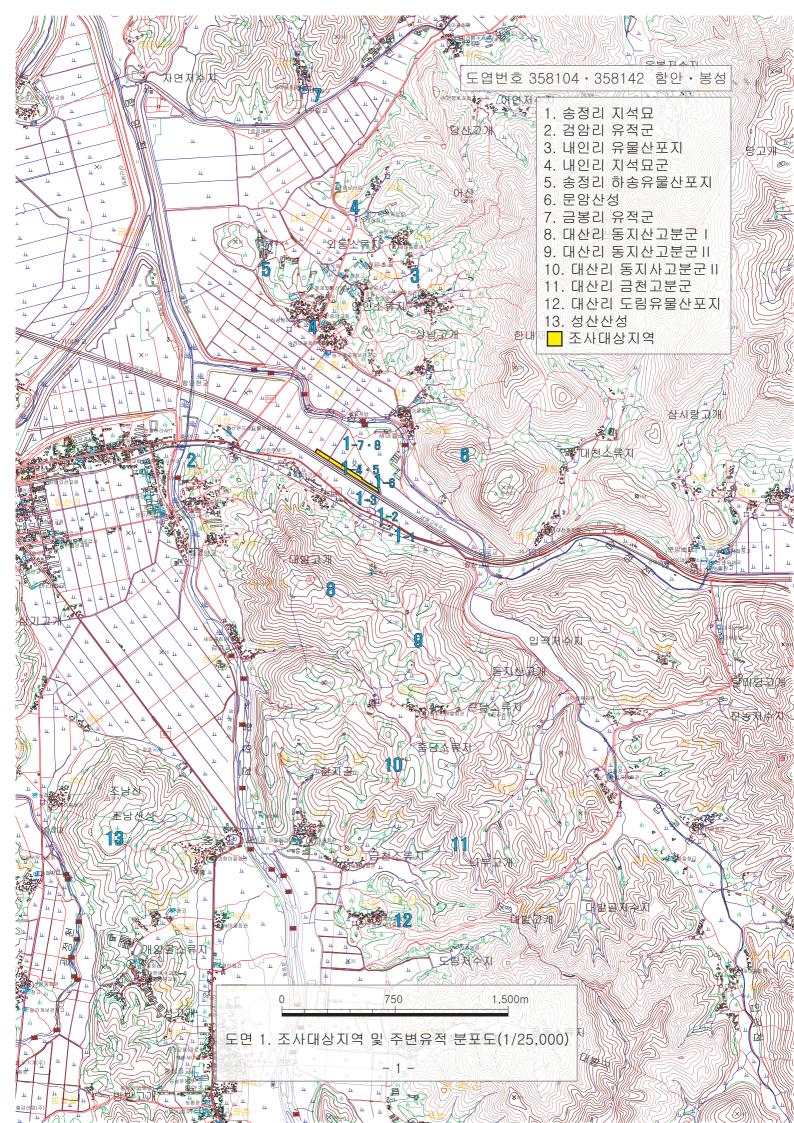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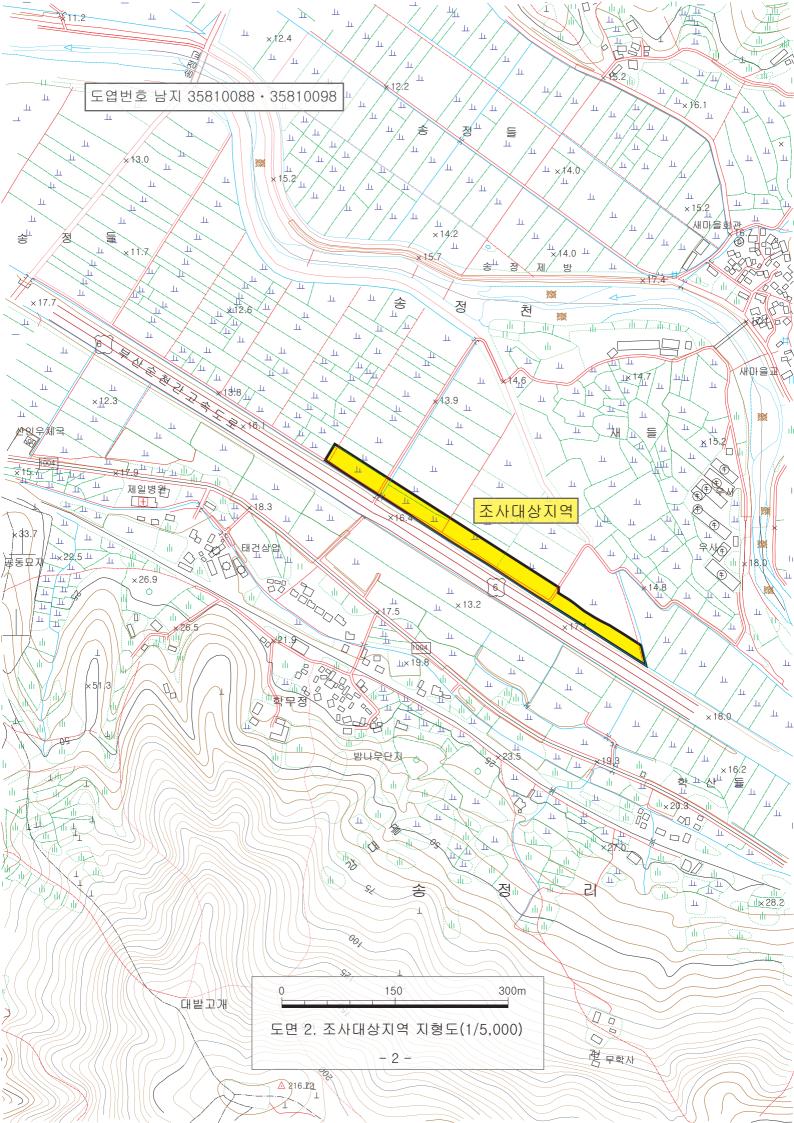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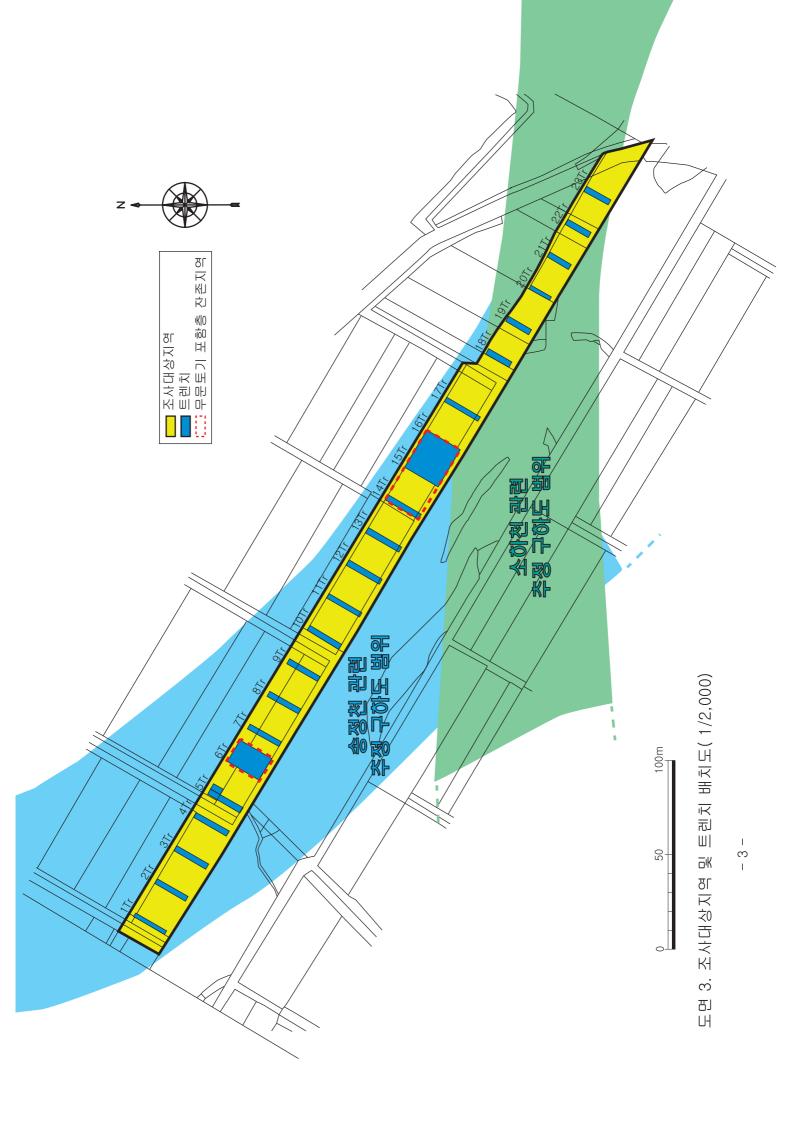
진주-마산간 고속국도 확장공사(7공구) 구간 내 문화유적 發掘(試掘)調査 現場說明會

2008. 7









I . 조사개요

1. 조사명

진주-마산간 고속국도 확장공사(7공구) 구간 내 문화유적 발굴(시굴)조사

2. 조사대상 지역 및 면적

조사대상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답 771-1 일원

조사대상 면적 : 15,187㎡

3. 조사기간

2008년 6월 26일 ~ 2008년 7월 26일

4. 조사기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5. 조사단 구성

조 사 단 장 : 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원장)

지 도 위 원 : 임효택(동의대학교 교수, 도문화재위원)

이동주(동아대학교 교수)

책임조사원: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조사보조원: 손민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박현욱(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6. 조사의뢰기관

한국도로공사

Ⅱ. 조사경위 및 목적

조사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답 771-1번지 일원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경남 사천시 죽동면 사다리~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일원 의 "남해고속도로(사천~산인간)확장사업" 부지에 해당한다.

2005년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한 남해 고속도로(사천~산인간) 확장공사에 따른 문화유적 정밀지표조사 결과, 조사대상지역과 인근한 곳에 송정리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1) 2006년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도 이지역에 수기의 지석묘가 산포는 것으로 확인되어 송정리 지석묘 1·2 유적으로 명명된 곳이다.2) 또한 마을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조사대상지역 주변에 과거 3~5기의 지석묘 상석이 존재하였다고 하나 현재 농지 개간등 으로 인해 상석은 유실된상태이다.

상기의 지표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조사대상지역은 청동기시대의 매장유적이 유 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 연구원에서는 본격적인 공사시행 이전 에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유존여부 및 분포범위를 확인한 후, 그 결과 에 따라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공사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 조사를 실시 하게 되었다.

Ⅲ. 조사대상지역 주변유적 및 자연환경

1. 주변유적3)

1) 함안 송정리 지석묘군

남해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관통하는 송정리 학산마을의 북쪽 경작지 일대에 위치한다. 모두 8기의 지석묘가 잔존하였다고 전해지나, 현재 상석이 유존한 것은 4기에 지석묘에 불과하다. 2호 지석묘의 상석에는 성혈이 관찰된다.

2003년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가야-마산간 4차 확포장 공사에 따라 3호 지석묘에 대한 긴급 발굴조사는 실시한 결과, 지석묘 하부는 매장주체부가 없이 집석을 갖춘 구조였음이 밝혀졌다. 출토유물은 집석주변에서 소량의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¹⁾ 東亞文化研究院『南海高速道路(泗川~山仁間) 擴張事業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2005.

²⁾ 昌原大學校博物館,『咸安郡 文化遺蹟分布地圖』, 2006.

³⁾ 昌原大學校博物館、『咸安郡 文化遺蹟分布地圖』, 2006.

2) 함안 검암리 유적군

冬只山(해발 216.7m)의 서북쪽 구릉말단부에 위치하며 유적의 대부분은 현재계단식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주변에서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편과 삼국시대의 회청색경질토기편이 수습되어 유적은 청동기시대의 생활유적과 삼국시대의 분묘유적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3) 함안 내인리 유물산포지

내인리 외동마을에 위치한 외동저수지를 중심으로 그 일대의 경작지에 산포한다. 유적은 자양산(해발 401.8m)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두 갈래의 사면 사이에 입지하며, 계단식 밭에서 다량의 무문토기가 수습되었다. 외동저수지를 중심으로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넓게 다량의 토기편이 채집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청동기시대의 생활·매장유적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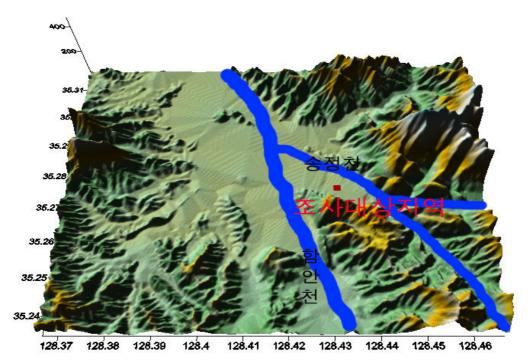
4) 함안 내인리 지석묘군

송정리 하송유물산포지의 북동편 경작지 주변에 지석묘 2기가 위치하였으나 경지정리 시 매몰되었다.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제방축조 전 홍수로 범람할때 이부근까지 물이 유입되었다고 한다. 현재 지석묘는 내인리에서 金峰으로 넘어가는 고개마루의 묘역 인근에 2기만이 잔존할 뿐이다. 1호 지석묘는 도로와 묘역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는데 상석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40cm, 너비 130cm, 두께 70cm 정도이다. 2호 지석묘의 상석은 경작면에 매몰되어 그 평면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판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길이 105cm, 너비 86cm, 두께 45cm 정도이다.

5) 함안 송정리 하송유물산포지

송정리 하송마을의 배후사면 일대에 위치한다. 유적은 자양산(해발 401.8m)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송정리 내인 마을 인근에서 남쪽으로 길게 이어진 구릉부에 위치하며 남북으로 함안천변의 넒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어 유적이 입지하기에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유물은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와 삼국시대의 경질 토기편이 소량 채집되었다. 유적의 동북쪽으로는 내인리 지석묘군과 내인리 유물산포지가위치한다.

2. 자연환경



도면 4. 조사대상지역 광역지형도

조사대상지역은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답 771-1번지 일원에 해당한다. 남쪽은 산지, 북쪽은 하천으로 에워쌓인 남고북저형의 분지상 지형이며 산지 곳곳에서 발 원한 지류가 가 남강으로 합류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이 중 조사대상지역의 북쪽으로 약 300m 가량 이격된 곳에 위치한 송정천은 남 서쪽으로 유수가 흐르는 입곡천과 함안천이 합류하기 전의 지점으로 하천주변에는 자연제방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송정들(뜰)은 송정천의 남쪽 배후에 형성된 평야 지대로서 송정천의 지질학적변화가 퇴적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Ⅳ.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1. 조사방법

조사대상지역은 마산에서 진주방향으로 진행하는 남해고속도로의 북쪽편에 위치한다. 우리 연구원에서 2005년 지표조사를 실시하기 이전부터 송정리지석묘 4~8호가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된 곳이다.4) 이 지역은 북쪽으로 송정천과 서쪽으로 함안

⁴⁾ 함안군・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 『문화유적분포지도(함안군)』, 2000.

천이 흐르며, 두 하천이 만나는 합수지점의 남쪽 충적대지는 현재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과거 하천의 유로 변동 및 범람, 경지정리 등으로 인해 선사시대의 지형이 변화되었을 것으로 예상하여 農路를 기준으로 각 구간마다 $20 \times 20 \text{m}$ 단위로 그리드를 설정한 후, 길이 $20 \text{m} \times$ 너비 3 m의 트렌치를 총 $23 \text{m} \times 20 \text{m}$ 문화층의 잔존유무와 분포범위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트렌치의 내부조사는 기본적으로 문화층이나 생토층이 확인되는 깊이까지 단면 토층조사 및 평명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이 중에 문화층의 분포가 의심되는 지점은 추가로 트렌치를 확장하여 평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비교적 토층상태가 양호한 트렌 치를 중심으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전경(남-북)

2. 조사내용

1) 1트렌치

조사대상지역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며, 토층조사 결과 3개층으로 대별된다. I층은 현대 경작층, Ⅱ층은 갈색 사질점토층, Ⅲ층은 자갈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트렌치의 남쪽 부분은 현대 경작과 관련된 배수구로 인해 교란된 상태였다. 트렌치 상에서 조사된 자갈층의 해발고도는 약 11.5m 정도이며 조사지역 북쪽에 위치한 송정천의 바닥 깊이가 약 11.9m 인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이 지역은 송정천의 범람으로 형성된 구하도로 추정된다. 트렌치 내부에서 문화층의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판 2. 1트렌치전경 (남-북)



도판 3. 1트렌치 토층전경 (남-북)

2) 4트렌치

4트렌치의 토층양상은 크게 4개층으로 대별되는데 I층은 현대 경작층, Ⅱ층은 갈색사질점토층, Ⅲ층은 흑갈색 사질점토, Ⅳ층은 황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다. Ⅲ층에서 파악된 흑갈색 사질점토층을 통해 볼때, 송정천의 잦은 범람으로 인해 배수가 불량한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트렌치 내부에서 문화층의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판 4. 4트렌치 토층전경 (남-북)



도판 5. 4트렌치 토층세부

3) 5트렌치

5트렌치는 현대 경작층을 제토하자 길이 70~80cm, 너비 50cm 가량의 석재 2매가 트렌치 동벽에 맞물려 노출되었다. 이에 문화층의 존재 및 유구의 잔존상을 판단하기 위해 평면 확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의 범람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판 6. 5트렌치 토층전경 (북-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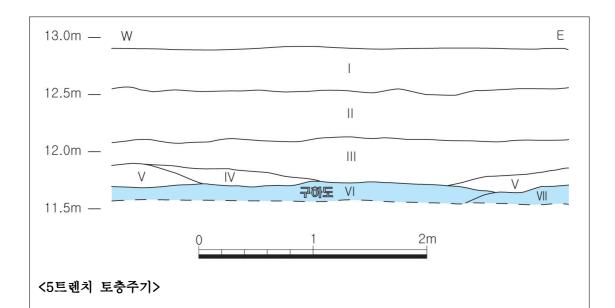
도판 7. 5트렌치 토층세부



도판 8. 5트렌치 확장부 전경 (남동-북서)



도판 9. 5트렌치 석재 노출상태



I 층 : 갈색 사질점토(HUE7.5YR4/4)

- 입자가 거칠고 1cm가량의 자갈 소량 포함. 현대경작층

Ⅱ층 : 회갈색 사질점토(HUE7.5YR4/2)

-입자가 거칠고 비닐등이 포함. 현대경작층

Ⅲ층 : 갈색 사질점토 (HUE7.5YR4/4)

-입자가 거칠고 사질성이 있음. 0.3cm가량의 석립 소량 포함.

IV층 : 엷은 갈색사질점토 (HUE7.5YR5/8)

-입자가 거칠고 사질성이 강함. 0.1~0.3cm가량의 석립 극소량 포함

V층: 갈색 사질점토 (HUE7.5YR4/3)

-입자가 거칠고 사질기가 강함. IV층보다 색조가 짙음.

VI층 : 회갈색 점토층 (HUE7.5YR4/2)

-입자가 곱고 점성이 강함. 0.1cm 가량의 석립을 극소량 포함.

Ⅷ층 : 자갈층+갈색 사질점토(HUE7.5YR4/4)

-사질기가 강하고 직경 1cm가량의 잔자갈을 다량 포함.

도면 5. 5트렌치 토층도

4) 6트렌치

6트렌치는 크게 7개층으로 대별되는데 I~Ⅲ층은 현대 경작층, IV·V층은 갈색 사질점토층, VI층은 무문토기편을 포함하는 암갈색 사질점토층, VII층은 자갈층으로 구분된다.

소량의 무문토기편이 출토된 VI층을 중심으로 문화층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평 면확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트렌치 내부에서 출토 된 무문토기편은 원마도가 상당한 것으로 볼 때, 송정천의 잦은 범람으로 인해 인 근에 입지해 있는 유적으로부터 토기편들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 다.



도판 10. 6트렌치 토층전경 (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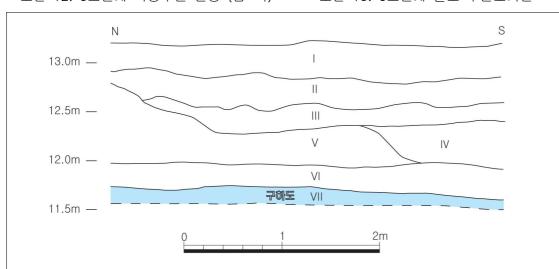


도판 11. 6트렌치 토층세부



도판 12. 6트렌치 확장부분 전경 (남-북)

도판 13. 6트렌치 출토 무문토기편



<6트렌치 토충주기>

I 층 : 흑갈색 사질점토 (HUE7.5YR)

-입자가 거칠고 1cm 가량의 석립 다량 포함. 현대 경작층

Ⅱ층 : 황갈색 사질점토 (HUE7.5YR4/2)

-산화철 집적층. 현대 경작층

Ⅲ층: 회갈색 사질점토 (HUE7.5YR4/2)

-입자가 거칠고 0.3cm가량의 석립 소량 포함. 근현대 경작층

Ⅳ층 : 갈색 사질점토 (HUE7.5YR4/4)

-입자가 거칠고 0.3cm가량의 석립 소량 포함

V층: 갈색 사질점토 (HUE7.5YR4/3)

-입자가 곱고 점성이 약간 있음. 0.1cm 가량의 석립 소량 포함.

VI층 : 암갈색 점토층 (HUE7.5YR)

-입자가 곱고 점성이 강함. 0.1cm 가량의 석립 극소량 포함.

원마도가 심한 무문토기 소량 출토. VII층 : 자갈층+갈색사질점토(HUE7.5YR4/4)

-사질성이 강하고 직경1cm 가량의 잔자갈 다량 포함.

도면 6. 6트렌치 토층도

5) 16트렌치

16트렌치는 2006년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시 송정리 4호 지석 묘가 유존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이며⁵⁾ 주변에는 송정리 5호, 7호, 8호 지석묘가 인접하고 있다.

토층양상은 크게 6개층으로 대별되는데 I층은 현대 경작층, Ⅱ층은 갈색사질점토층, Ⅲ층은 조사지역 동쪽에서 송정천으로 진행하는 소하천과 관련된 자갈층, Ⅳ층은 무문토기편이 소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층, Ⅴ층은 황갈색 사질점토층, Ⅵ층은 송정천과 관련된 자갈층으로 구분된다.

무문토기편이 수습된 IV층까지 전면 제토를 실시하여 유구확인작업을 실시하였으나 평면상에서 유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토층상에서 출토된 무문토기의 원마도가 심하고 매우 작은 편들만 수습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송정천의 잦은 범람으로 인해 인근에 입지해 있는 유적으로부터 토기편들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도판 14. 16트렌치 토층전경 (남-북)



도판 15. 16트렌치 토층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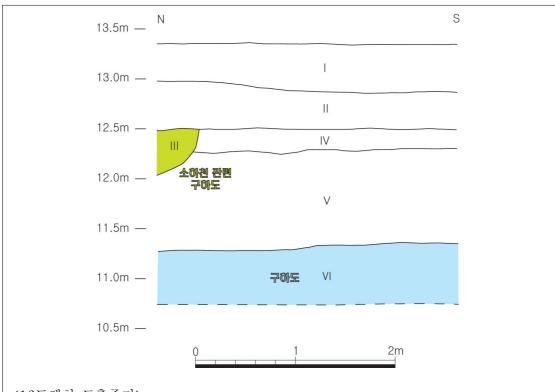


도판 16. 16트렌치 확장부분 전경 (서-동)



도판 17. 16트렌치 출토 무문토기편

⁵⁾ 昌原大學校博物館,『咸安郡 文化遺蹟分布地圖』, 2006.



<16트렌치 토층주기>

I 층 : 갈색 사질점토(HUE7.5YR4/3)

-입자가 거칠고 전체적으로 푸석함. 근현대경작층

Ⅱ층 : 갈색 사질점토 (HUE7.5YR4/4)

-입자가 거칠고 0.3cm 가량의 석립 소량 포함.

Ⅲ층: 자갈층

-직경 1cm 가량의 잔자갈을 다량 포함.

Ⅳ층 : 암갈색 사질점토 (HUE7.5YR2/3)

-입자가 곱고 점성이 있음. 0.2cm 가량의 석립 및 무문토기편 소량 혼입

V층 : 황갈색 사질점토 (HUE7.5YR5/8)

-전체적으로 굳기가 단단하다. 0.1cm 내외의 석립 극소량 포함.

Ⅵ층 : 자갈층

-직경 1cm 가량의 잔자갈을 다량 포함.

도면 7. 16트렌치 토층도

8) 23트렌치

23트렌치는 조사대상지역의 동쪽에 위치하며, 토층조사시 현대 경작층과 소하천의 범람으로 형성된 자갈층이 조사되었다. 이 중 자갈층은 17트렌치 남쪽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볼 때, 송정천으로 진행하는 소하천의 流路로 추정되며, 현대 경작을위해 하천 일부를 복개하고 상부면을 복토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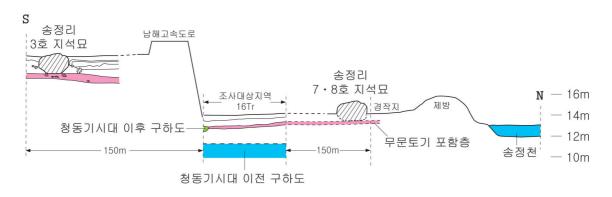




도판 18. 23트렌치 토층전경 (북-남)

도판 19. 23트렌치 토층세부

이상과 같이 각 트렌치별 토층양상을 종합하여 조사대상지역의 지형변화를 유추하면 다음과 같다.



도면 8. 조사대상지역 주변지형 단면 모식도

조사결과, 각 트렌치 내부에서는 송정천의 구하도 바닥으로 추정되는 자갈층이 조사되었는데, 이 자갈층의 해발고도는 $11.2\sim12$ m 지점에 해당하여 현재 송정천 바 닥의 해발고도인 약 12m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과거 이 일대는 송정천과 관련 된 하도가 위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6·14 ~ 16트렌치에서 조사된 무문토기포함층에서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남해고속도로에 의해 단절되어 남쪽으로 약 150m 가량 떨어져 위치하는 송정리 지석묘 3호의 문화층과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을 종합한다면, 과거 청동기시대 이전에 조사지역 일대는 송정천의 유로가 발달하였고 점차 송정천은 사행에 의해 북쪽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후 조사대상 지역 남쪽 구릉을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형성되었고 송정천의 잦은 범람으 로 인해 이 일대가 배후습지화 되었으며 근현대 경작등으로 무문토기포함층이 일부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대상지역 인근에 위치한 상석들은 대부분 원 위 치에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16트렌치의 토층양상으로 볼 때, 무문토기 포 함층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하부에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유존할 가능성이 있다.

V. 조사성과 및 조사단 의견

1. 조사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답 771-1일원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경남 사천시 죽동면 사다리~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일원의 진주-마산간 고속국도 확장공사(7공구) 구간 내에 해당한다.

2005년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한 남해 고속도로(사천~산인간) 확장사업에 따른 문화유적 정밀지표조사 결과, 조사대상지역 인근에 송정리 지석묘가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 연구원에서는 본격적인 공사시행에 앞서 금번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조사대상지역은 남쪽의 산지와 북쪽의 하천으로 에워싸인 남고북저형의 지형으로서 송정천이 함안천으로 합류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펼쳐진 충적평야지대에 입지한다. 따라서, 발굴(시굴)조사는 農路를 기준으로 각 구간마다 20×20m 단위로그리드를 설정한 후, 총 23개소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문화층 및 분포범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3.토층조사결과, 5트렌치에서는 길이 70~80cm, 폭 50cm 가량의 석재 8~10매가량이 노출되었으나 하도의 범람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6·14~16트렌치에서는 무문토기가 소량 출토되어 확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유구는 확인되지않았다.

따라서, 조사대상지역은 과거 송정천의 하도가 흘렀던 것으로 판단되며 송정천의 잦은 범람으로 인해 배후습지화가 진행된 후, 근·현대에 이르러 경지정리를 실시 하여 지금과 같은 경작지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금번 조사결과,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공사진행중 발굴(시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시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지체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 지표조사시 알려진 송정리 지석묘 4~8호의 상석은 대부분 유실되었거나 매몰된채 방치되어있으며 일부는 표지석마저 유실된 상태이다. 따라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진행될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명확한 성격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관계당국 및 시공사에서는 더 이상의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現場說明會 第133輯

진주-마산간 고속국도 확장공사(7공구) 구간 내 문화유적

發掘 試掘 調查 現場說明會

인 쇄 일 / 2008년 7월 21일 발 행 일 / 2008년 7월 22일

編輯·發行/點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630-810 경남 마산시 양덕동 96-20

동문빌딩

TEL: (055) 265-9150~3 FAX: (055) 265-9154

E-mail: feaci03@hanmail.net